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두 열 아우구스티노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김 평 기 토 마 스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010-5023-6908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테살5,17)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오후 6시(학생미사)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 교황님의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화요일 저녁 7시30분~8시30분					

◆ 레지오마리아 훈화(5/16~5/22)_보좌신부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 사명이 시급하고 많은 군중이 당신께 절실히 탄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외딴곳에 가시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많은 병자가 모이고 예수님께 희망을 둔 군중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셨습니다.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 그들의 기대에 얽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착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며 다른 고을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며 아버지께 드리는 지속적인 경청에서 기도의 의미를 찾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겹세마니 동산의 그 방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의 전례를 공유하시면서 공적인 순간들에 열렬히 기도하셨지만, 세상의 혼란에서 떨어져 당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장소인 외딴곳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닌 시편의 말씀,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들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방식에는 신비로운 면모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당신 제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 11,1). 이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십니다. 당신께서 나누셨던 아버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기도를 전하며 둘만의 관계가 아닌 우리 모두를 그 친교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친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했던 것처럼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해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설령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라고 고백하는 세리처럼 기도의 첫걸음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배우며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져 버리게 놓아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릉 천하	수진가새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전주대건신협
수제 누릉지 전문점 명절 선물세트 각종 행사 답례품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마르타) 풍남문 정문 앞 H.P.010-8642-9105 ☎282-900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루아) 덕진구 세병남로25 (송천동2가) (에코상성정형외과, 에코라인 의원, 에코롯데리아건물) ☎272-8066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상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휘(안드레아) 진버들6길8-10(아중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예금상당, 대출상당은 전주대건신협에서! 본점 ☎288-0191 이사장 송각호(바로로) 010-3675-4297

